

이상기후 대응... “도민 불편 최소화”

도, 겨울 재난 대비 태세 들어가
대설 예비특보 단계 비상 근무
전기·통신 관련기관 협력 강화
고립예상 지역 위성전화기 배치

경북도가 지난 15일 도청 회의실에서 겨울철 자연 재난(대설·한파) 대비 점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대비태세에 들어갔다.

점검 회의에는 도 재난관리과장, 경북 경찰청, 대한적십자사, 한국전력공사, KT 등 유관기관과 22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도는 이번 겨울 평상시에는 24시간 3교대 상황 근무로 재난 상황을 관리하고, 대설 예비특보 단계부터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한다.

도는 폭설에 대비해 제설제 1만866t, 제설 장비 3965대를 확보한 데 이어 지난 달 10~16일에는 시군의 겨울철 자연 재난 사전 대비 실태 점검·정비를 완료했다.

많은 강설로 고립이 예상되는 산악마을 가구에 대한 전기·통신 두절 상황을 관리

하고자 전기·통신 관련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이들 기관이 시군 부단체장과 경북도에 즉시 상황을 통보하면 즉각적인 제설작업과 통신 및 전력 복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고립 예상 지역 인근 별복업체와도 비상 연락망을 구축해 상황 발생 때 설해목 제거와 제설을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월 대설로 인한 정전·통신두절 피해가 발생한 울진군 금강송면 일원 산악마을 등 고립예상 지역에는 위성전화기를 13대 배치하고 비상전원장치를 설치해 최소 24시간 이상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파 쉼터 5113곳을 운영하고, 한랭질환 응급의료기관 감시체계도 구축기로 했다.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방문 및 안부 전화로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

박성수 경북도 안전행정실장은 “이상기후로 인한 기습 폭설과 기록적인 한파 등 예측 불가한 자연 재난이 잦다. 자연 재난 발생 때 신속한 대응과 지체 없는 복구로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대구경북 수능 부정행위 총 12명 집계

4교시 종료 기준 모두 9건
반입 금지 물품 소지 포함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대구와 경북은 부정행위자가 각각 9명, 3명으로 집계됐다.

대구시교육청은 14일 “올해 수능 지역 부정행위 사례는 4교시 종료 기준 모두 9건”이라며 “지난해 부정행위 적발 7건보다 2건 늘었다”고 밝혔다.

적발된 부정행위는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 위반 3명 △반입금지 물품(전자

기기)소지 5명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또는 수정 1명 등이다. 경북은 포항, 구미, 영주에서는 부정행위자가 각 1명씩 적발됐다. 포항과 구미 수험생은 4교시 한국사·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에서 응시 방법을 어겼다. 영주 수험생은 시험장에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해 응시 자격을 잃었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수능 성적에 무효 처리된다.

이날 대구와 경북에서는 125개 시험장에서 4만4202명이 수능을 치렀다. 성적은 다음달 6일 수험생 개인별로 통지된다.

조여은 기자

해오름 생활 체육 대축전 열려

해오름 생활 체육 대축전 열려

포항·울산·경주시가 참가하는 ‘해오름 생활 체육 대축전’이 지난 16일 포항체육관에서 5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17일 포항시에 따르면 대축전은 포항·울산·경주시, 시의회, 체육회 주축으로 생활체육인이 스포츠 교류로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자리다.

지난 2018년 울산시에서 대축전이 시작된 후 올해 5회째 열렸다.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송호준 경주시

부시장, 3개 도시 시의회 부의장과 시의원, 체육회장 등이 참가해 상생·화합을 다졌다.

파라슈트 공 튀기기, 전락 줄다리기 등 명랑 운동회와 시별 대한 시의원 족구대회, 배구, 풋살, 국학기공 등 다양한 생활체육 종목 경기가 펼쳐졌다.

특히 올해는 3개 도시 참가자가 노래와 댄스 등 다양한 끼를 펼치는 장기자랑 시간을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울산시가 7330상, 경주시가 화합상, 포항시가 우정상을 받으며 마무리했다.

윤용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영주시장, 2심 당선무효형

재판부 “피고인들에 책임 전가...
수사 방해 행동... 정황 등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에게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14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영주시장 등 8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4명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정성욱 고법판사는 “경선에 임박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고 경선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부정 경선 운동을 자행함으로써 당내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범행으로 인해 유권자들의 의사가 왜곡되고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오랜 기간 영주시에서 기업활동 및 시의원 등을 역임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한 점 등을 종합했다”

며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들을 동원해 불법적인 경선 운동을 하거나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을 동원해 불법적인 경선 운동을 했고 경선 운동 또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선거를 벌였다.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등 각자 분배된 역할에 따라 적극적으로 부정선거 행위를 함으로써 지방선거에서 조직·체계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당시 박남서 영주시장 후보는 당내경선 과정에서 다른 후보 2명과 경합을 벌이고 있었다.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강세를 보이는 지역임에도 박 후보는 득표율 4.42%(2400여표) 차이로 무소속 황병직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피고인들은 선거일에 임박해서까지 선

거운동 관련 금품을 제공했고 상대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을 중심으로 금품선거를 자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이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5년간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경우에는 그직에서 퇴직된다.

앞서 1심은 박남서 영주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비롯해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등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무죄 등을 각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다른 피고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휴대전화와 유심을 변경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는 행동을 취한 것도 아주 좋지 못한 정황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전성기 기자

의성군의회 “공론화 과정 없는... 일방적 추진 반대”

군의회 “민주주의 기본 원칙 위배”
“지역균형발전·지방자치 존중을”

경북 의성군의회는 14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 “공론화 과정 없는 일방적인 추진 방식에 반대한다”며 민주적 토대 위에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날 임정문을 통해 “지난달 21일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합의문이 발표되면서 대구경북 통합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공론화 과정 없는 일방적인 추진 방식으로 인해 통합 목적과 취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또 “합의 과정에서 경북도와 대구시는 시·군과 내용을 공유하지 않고, 의견수렴도 하지 않은 채 도지사와 시장 단 둘만의 논의로 일관했다”고 반발했다.

군의회는 “이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시·군 의견이 배제된 대구경북 통합은 과연 무엇을 위한 행정통합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은 시·군민 동의 없는 밀실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 가치를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경북도와 대구시는 행정통합 이전에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적 이전을 위해 공동합의문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화물터미널 위치를 의성군 건의안대로 반영할 것도 강력히 촉구했다.

박재성 기자

2025

APEC정상회의
경주유치

月刊

정치와사람

곧
독자 결으로
다가갑니다!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한해를 마무리하는 올해 마지막 기획공연으로 2024 군위 송년콘서트 더스타스 갈라쇼가 내달 12일 오후 7시에 화려하게 개최된다.

‘뮤지컬 갈라쇼’는 뮤지컬 작품들의 주요한 곡들만 골라서 콘서트 형식으로 하는 공연으로 뮤지컬 작품 전체를 공연하는 것이 아닌 작품들의 예기스만 모은 편집본을 만들어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더스타스 갈라쇼’ 공연은 국내 최정상급 뮤지컬 배우로 구성하였으며 수많은 작품에서 연기는 물론 노래와 춤실력까지 인정받으며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민우혁, 차지연, 이진명 등이 한자리에 모여 화려하고 완성도 높은 뮤지컬 갈라쇼를 선보일 예정이다.

박재성 기자



대구 앱 ‘다대구’... 생활 서비스 2개 추가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인증 앱
건강진단·어린이집 등·하원 조회
블록체인 기술 활용 높은 보안성
“향후 다양한 서비스 연계할 것”

대구는 ABB 과학행정으로 시작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신원인증 앱 ‘다대구’를 통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전자증명서 발급과 어린이집 등·하원 시간 조회 서비스를 이달 18일부

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는 두 서비스는 시민들의 일상 편의성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다대구 앱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는 식품업 및 공중위생업 등 법정 업종 중 사자들이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디지털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어, 번거로운 종이 발급과 보관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어린이집 등·하원 시간 조회 서비스는 보호자들이 자녀의 등·하원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높은 보안성을 갖추고 있으며, 데이터 위·변조를 방지해 부모들이 자녀의 안전을 안심하고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다대구’ 신규서비스 오픈 기념으로 대구

시가 운영 중인 공공·민간·마일리지 통합서비스 ‘D마일’ 회원 대상 이벤트도 실시한다.

이벤트 기간은 이달 18일(월)부터 29일(금)까지이며(11.18.~11.29), D마일 기존·신규 회원 중 문제를 맞힌 회원 500명에게 10,000마일리지를 지급한다.

“다대구”는 대구시가 추진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신원인증(DID) 기술을 도입한 앱으로, 공공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대구시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확대해 시민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ABB 과학행정 도시로서의 면모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류동현 대구광역시 AI블록체인과장은 “이번 서비스 추가로 시민들이 다대구 앱을 통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일상 생활의 필수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며, “향후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해 대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기업은행 특별출연, 소상공인 금융 협약

대구신보 300억원 규모 협약보증
기업당 최대 5천만원 보증지원

대구신용보증재단은 기업은행 특별출연을 통한 ‘소소한 행복’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협약보증을 실시한다.

이번 협약으로 기업은행에서는 대구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 지원을 위해 대구신보에 20억 원을 출연하고, 대구신보는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300억 원 규모(출연금의 15배)의

협약보증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대구광역시 내에 사업장을 둔 기업 중 중소기업·소상공인,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소상공인이며, 기업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증지원 받을 수 있다.

박진우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소소한 행복’ 협약보증을 통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황태용 기자



“청소년 선도 더욱 힘써주길” 홍준표 대구시장 15일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에서 대구시 자율방범연합회 임원진(김용환 회장 외 3명)을 면담하고 격려했다. 대구시 자율방범대는 총 173개대 3,800여 명의 대원이 활동 중으로 야간 방범 순찰 활동 및 청소년 선도, 자연 재난 피해지역 복구작업 지원 등 범죄예방 활동 등 지역 사회 안전을 지키는 지역 봉사 단체이다.

황태용 기자

계명대 동산병원,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 1등급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KEIMYUNG UNIVERSITY
DONGSAN HOSPITAL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제2차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에서 종합점수 100점으로 1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는 우울증 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질 향상 등을 위해 시행됐으며, 전국의 의원급 이상 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만 18세 이상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에 대해 평가했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첫 방문 후 3주 이내 재방문율 △첫 방문 후 8주 이내 3회 이상 방문율 △우울증상 초기평가 시행률 △우울증상 재평가 시행률 △항우울제 84일 이상 처방 지속률 △항우울제 180일 이상 처방 지속률 총 6개 평가항목에서, 종합점수 전체평균인 470점을 상회하는 100점을 기록하며 우울증 외래 진료에 강점을 보였다.

류영욱 병원장은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 불릴 만큼 흔하지만 다양한 인지, 신체적 증상을 일으킬 수 있기에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이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앞으로도 우울증 환자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태용 기자

비수도권 최대 규모... ‘기계산업대전’ 개최

올해 전시회 252개사 669부스
‘국제첨단소재부품산업전’ 주제

기계·첨단소재·부품산업 분야의 최신기술과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역 대표 전문 전시회인 ‘2024 대구국제기계산업대전’이 19~22일까지 4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다.

올해 전시회는 252개사 669부스의 비수도권 최대 규모로 개최되며, 자동화를 넘어 자율제조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대구국제자동화기기전’과 완성품의 품질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이 모인 ‘국제첨단소재부품산업전’으로 구성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올해 25회를 맞는 ‘대구국제자동화기기전(DAMEX 2024)’은 157개사 483부스 규모로 조성되며 스마트공장 구현기술, 첨단 공작기계·설비 등이 전시된다. 이와 함께 기계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구·금형, 제어계측·검사기기 등의 최신 기술과 산업 동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디지털전환 산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150여 부스 규모의 ‘디지털전환(DX)’특별관이 운영된다.

이 밖에도 제조 산업의 미래와 성장 방향을 제시할 전문 세미나, 설명회 등 정보교류 행사들이 전시 기간 중 다양하게 진행되어 기업 간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기술·경영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소재·부품산업은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산업이자, 최종 완제품의 성능과 품질, 가격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산업이다”며, “대구국제기계산업대전이 기계·첨단소재·부품산업 분야의 내수 활성화와 수출시장 개척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태용 기자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

창간 1996년 7월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 www.dgy.co.kr 전자우편 : dgynews@daum.net

회장 손경찬 | 발행인 김 영 속 | 편집인 김 성 용 | 부사장 조 여 은 | 편집국장 김 현 석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표 053-267-9000 경영지원국 053-267-5000 광고국 053-267-0800 문체부 053-253-0065

부사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67-0600 사회부 053-253-0060 지방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임원실 053-26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구시교육청 학교연합 학생회 정례회

대구시교육청은 16일, 대구민주시민교육센터에서 고등학교 학생회 대표들로 구성된 ‘2024년 학교연합 학생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학생, 지도교사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소속 학교의 토론 활동 우수 사례 공유, 문제점 진단 및 정책 제언, 실천 프로젝트 등에 대한 분과별 의제 토론을 펼친다.

이후, 모든 분과의 학생들이 모여 공통 의제

인 ‘모두가 행복한 학교 공동체’를 위한 선언문만들기와 관련된 토론을 통해 행복한 학교공동체 형성을 위한 생각을 나누고, 내달 14일에 개최 예정인 학교연합 학생회 활동 성과나눔회에 대해 논의한다.

김성용 기자



李 지사 “APEC 가장 성공적 대회로 준비...”

특별수행원 자격 페루 방문 활동
경주시장 함께 개최 도시 홍보
페루 준비 과정·행사장 조성 확인
남미 진출 한국 기업인과 간담회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대통령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페루를 방문한 이철우 경북지사가 지난 15일(현지 시각)부터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
17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철우 지사는 페루 문

화부에 조성된 미디어센터와 전시관에서 김석기 국회의원, 주낙영 경주시장과 함께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경주) 홍보활동을 펼쳤다.
페루 언론사와 외신들은 이 지사 등 방문단에게 인터뷰를 요청하는 등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지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다.
이 지사는 취재진에게 “내년 APEC은 경주의 찬란한 문화와 역사, 그리고 한국경제의 뿌리와 미래산업을 마주할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석기 국회의원은 “역대 가장 훌륭하고 멋진

APEC을 준비하고 있다. 내년엔 경주를 찾아와 좋은 취재를 해달라”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금 페루에서 진행하는 APEC 행사를 잘 보고 가서 역대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개최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 일행은 최종 고위관리 회의장, 합동각료 회의장, 정상 회의장이 있는 리마컨벤션센터와 미디어센터 및 전시관을 둘러보며 “2024년 APEC 페루 정상회의의 준비 과정, 행사장 조성 상태, 전시관 구성 콘텐츠에 이르기까지 꼼꼼히 확인했다.

국립대극장에서 열린 CEO-서밋에는 직접 참석해 현장을 경험하고 글로벌 CEO들의 활동을 참관했다.
이 지사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홍보활동 후 경북 지역 기업들의 남미 진출을 위한 산업 정보 교환 등을 위해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과 간담회에도 참석했다.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내년 10월 말~11월 초에 경주에서 열리며 21개 회원의 정상 및 글로벌 CEO, 내외신 기자 등 2만여 명이 경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도는 다양한 회의장 조성과 국민 오·만찬



행사와 혁신적 전시관 운영, 다양한 문화관광 프로그램으로 경북 경주가 10대 세계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문화관광 르네상스의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김성용 기자



“도심 속 농업의 가치 공유” 경북도농업기술원은 청년 농업인과 도시민이 함께 농업의 가치를 체험하고 나누기 위해 ‘제54회 경상북도 4-H경진대회’를 지난 15일과 16일 경상북도농업인회관과 대구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개최했다. ‘도심 속 꿀크닉, 농업의 가치를 나누다’라는 테마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첫날 농업인회관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우수회원 표창과 저출생 극복다짐 퍼포먼스 등이 마련됐다.

구미시 운영 ‘로컬푸드’ 직매장 빠른 성장세

누적 매출액 65억원 수준
지난해 매출액 比 83% ↑

경북 구미시가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도농상생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17일 구미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구미로컬푸드 직매장 누적 매출액은 65억원, 방문객

수는 35만4811명에 달한다.
지난해 매출액(23억원) 대비 83% 늘어난 42억원을 달성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농산물 유통비용이 낮아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로컬푸드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구미 농업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도농상생소통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송명주 기자

포항철강산업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보고회

포항시는 포항철강산업단지에 에너지 자급자족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 15일 ‘SK 이노베이션 E&S 컨소시엄’과 ‘포항철강산업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사업’ 1차년도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
시와 경북도, 한국산업단지공단, SK 이노베이션 E&S, 영남에너지서비스, 삼원강재, 엔틀, 라

온프렌즈, 자이슉, 신성이엔에스, 포스텍 관계자가 보고회에 참석했다.
사업은 2027년까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등으로 에너지 자급자족 실증단지를 조성한다.
포항시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공모에 지난 4월 선정돼 포항철강산업단에 4년간 총사업

비 363억원(국비 200억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보고회에서 SK 이노베이션 E&S 컨소시엄과 함께 RE100 이행 전략과 글로벌 환경규제, 발전 인프라 도입 방안,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논의했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철강산업단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에너지 자급률을 높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성주군 참외 가공품 4종 출시

경북 성주군은 참외 가공품 4종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참외 가공제품은 참외의 향과 맛을 그대로 담은 참외쿠기(참외한입) 1종과 참외과즙을 활용한 음료류(당절임) 3종이다.
음료류는 청초한참외, 청초한석류, 청초한포도 등이다.

‘참외한입’은 참외동결건조분말 2%와 참외말랭이 5%가 함유된 과자류다. 기존 지역특산 가공품과 차별성을 갖기 위해 동결건조분말을 활용해 참외의 천연향을 반영했다.
청초한참외, 청초한석류, 청초한포도 제품은 참외과즙에 초(醋)성분을 배합한 제품이다. 카페 음료베이스 제품인 B2B상품으로 기획했고 모감보, 하이오 등 프랜차이즈형 카페에 납품할 예정이다.

도재훈 기자

구미 박정희 마라톤대회 3월 개최

구미시가 박정희 전 대통령 이름을 내건 전국 단위 마라톤 대회를 연다.
17일 구미시에 따르면 내년 3월 2일 구미시 일원에서 ‘2025 구미 박정희 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
지난달 6000여 명이 참가해 성황리에 끝난 구미시민마라톤대회에 이은 대회다. 전국 러너들이 한자리에 모일 것으로 기대된다. 대회는 하프, 10km, 5km 부문으로 치러진다. 구미국가산업단지출발해 구미대교-동락공원-남구미대교-낙동강강변도로를 거쳐 수출탑까지 이어진다. 참가자는 온라인(www.gumimarathon.com)에

서 신청할 수 있으며 1만명 규모로 모집한다.
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내년 5월 구미에서 열리는 ‘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성공개최를 염원하고 전국적인 스포츠 도시로서의 브랜드를 강화하고, 축제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박정희 마라톤대회는 구미국가산업단지를 배경으로 한 명품 코스를 통해 대한민국 대표 마라톤 축제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명주 기자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아이들 덕분에 행복한 대한민국!

결혼, 출산, 돌봄까지 모든 것을 경북이 책임지겠습니다!

1960년대 후반 산아제한 포스터

100대 실행 과제

연번	분야	실행 과제	연번	분야	실행 과제
1	안전주거(4)	젊은 경북, 청춘동아리 활동 운영	34	양성평등(19)	농협학교 간식 지원 플랫폼 제공
2		청춘시 연애음 솔로마을 운영	35		농협학교 급 간식 업체 정보 제공
3		예비 엄마들을 위한 행복가족여행	36		돌봄·독서 융합 경상북도 돌봄도시권 구축
4		술로 및 산후부부 국제크루즈관광 지원	37		아르바이트 긴급 돌봄센터 운영 확대
5		출산축하박스지원	38		24시 시간제 보육 지원 확대
6		산모 건강회복 미역국 알키트 지원	39		119응급처치 편의점 운영
7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40		아이돌보미 채용개입(수당) 지원
8		임신부 이혼아들 태교여행 지원	41		통제 돌봄을 위한 대학생 아이돌봄 서포터즈 운영
9		초보 엄마아빠 복통을 해소할 사업	42		종교시설을 활용한 돌봄공동체 지원
10		생애초기 건강관리지원사업	43		농촌형 보육서비스 지원사업
11	행복출산(1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44	청소년 부모 양육 등 통합 패키지 지원	
12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	45	임영아동·위기관임신부 보호지원 체계 구축	
1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46	대한민국 두뇌 역량강화 프로젝트 경북형메이커문화사업	
14		난임난임시술비 지원	47	가족돌봄 공백지 사별 운영	
15		냉동난자 사육 보조생식술 지원	48	가족친화형 우수 경영장 지원	
16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확대	49	지역예술인과 함께하는 아이돌봄 예술교육	
17		공공산후조리원 확대(거점형 등)	50	영아 표준 보육 과정 신설	
18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운영 지원	51	돌봄 융합 특구 조성	
19		강천의료원 분만사무원과 운영	52	산단 특화 돌봄·교육 통합센터 건립	
20		돌봄 공동체 프로젝트 “우리동네 돌봄마을” 조성	53	공향신도시 아사사랑 리빙파크 조성	
21	온종일 자녀안전 이사사랑 차돌문화	54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22	돌봄 통합정보 제공 서비스	55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23	우리동네 돌봄마을을 우리아이 안심길 조성	56	청년농부 주거환경 개선		
24	우리동네 돌봄마을을 이웃 안전 지원(자정경찰)	57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25	우리동네 돌봄마을을 이웃 안전 지원(소방)	58	다자녀 가정 주거 생활 한시 특별지원		
26	우리동네 돌봄마을을 지원봉사 재능기부	59	다자녀 가구 이사비 지원		
27	우리동네 돌봄마을을 친환경 과일단지 지원	60	영유아 동반 가족 우선 주차장 설치		
28	우리동네 돌봄마을을 급·간식 업체 정보지원	61	CCTV활동 스마트도시 안전망 추진		
29	경북형 생활SOC 입지분석 시행	62	안심하고 학교 가는 길 조성		
30	농협학교 지원(보육·돌봄 전문가 연봉 제공)	63	영유아친화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진		
31	농협학교 안전 지원(소방본부)	64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32	농협학교 등하교 안전인력 지원(자치경찰)	65	문화용 통한 민관협력형 저출생극복 프로젝트		
33	농협학교 자원봉사자 지원	66	청년 유입을 위한 지역활력다온 조성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청송 울릉



울진군 죽변적십자, 나눔 실천

울진군 죽변면사무소는 지난 13일 죽변적십자봉사회(회장 이정옥)로부터 생필품 키트 20세트를 기탁 받았다. 기탁받은 생필품 키트 20세트는 11월 입동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대상 가구의 안부를 확인하고 추운 겨울 동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를 당부하며 물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죽변적십자회 이정옥 회장은 “나눔과 함께라는 의미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청송청소년상담센터, 홍보 활동

청송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13일 청소년 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진성중학교 포래상담자들과 함께 운영했다.

이번 캠페인에서 진성중학교의 포래상담자들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을 위한 안내 자료를 나누어주며,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핫팩을 배포하는 등 캠페인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포래상담 프로그램은 일정한 훈련을 받은 청소년들이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공감, 의사소통, 리더십을 기르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진보초등학교 58명, 진보중학교 6명, 진성중학교 6명, 진보고등학교 6명 등 총 73명의 학생들이 포래상담 기본 교육을 이수하고 포래상담자로 활동하고 있다.



서면어린이집, 재활용 동참

서면어린이집아동 34명이 11월 14일, 서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우유팩을 재활용하여 종량제봉투로 교환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서면어린이집은 매년 아동들과 함께 우유팩을 모아 휴지, 종량제봉투 등으로 교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이들은 우유팩을 분리수거하고 그 대가로 종량제봉투를 받으며, 재활용이 환경보호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적 이점에 대해 직접 체험한다.

이종금 원장은 “서면어린이집은 업사이클링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들이 재활용의 가치를 배우고 있다”며, “아이들이 자신들이 모은 우유팩이 소중한 자원으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기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항 ‘철길숲’…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이용률 조사…휴일 3만여명
연간 4348억 원의 소비 유발
이동고가 득량동 구간 최다

포항시가 녹지정책에 활용할 기초데이터 구축을 위해 10월 넷째 주 철길숲 주요 진입부 7개소를 대상으로 이용률을 조사한 결과 평일 2만 6,833명, 휴일 3만 1476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간별로는 이동고가(득량동) 구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대잠고가(대잠동), 남부고가(용흥동), 학산주공 앞(우현동) 순으로 나타났다.

요일별 이용률을 보면 휴일은 유강리 유강고가, 효자동 효자시장 앞, 대잠동 대잠고가, 득량동 이동고가, 용흥동 용흥고가 구간이 높았고 평일은 덕산동 서산터널, 우현동 학산주공 앞 구간이 높았다.

철길숲 북부 구간은 출퇴근 및 통학로와 같은 일상생활에 이용되는 비율이 높고, 남부 구간은 여가 활동에 활용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7시부터 9시까지 아침 시간대는 평일이 휴일보다 이용률이 높았으며 그 밖의 시간대는 휴일이 평일보다 높게 나타나 철길숲이 평일에는 시민들의 출·퇴근 및 등·하교길, 주말에는 휴식 및 여가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빅데이터 분석에 의하면 철길숲의 유동 인구 증가로 유발된 소비 효과는 2022년 기준 연간



4,348억 원으로 철길숲 조성에 따라 골목 중심 유동 인구가 늘고 소비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철길숲 연결 지역에 신축된 150개의 건축물 가운데 65%가 상업용 시설로 철길숲 조성 이후 주변 지역의 소비가 촉진되며 자발적 도시재생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철길숲 조성 이후 도심 내 걷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유동 인구가 늘고 원도심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숲길과 물길 연결로 걷기 좋은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항 철길숲은 도시숲 조성 우수사례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외 도시숲 분야 각종 평가에서 11회 수상했으며 국제적 권위를 지닌 UN해비타트 주관 아시아 도시경관상 본상 수상을 비롯해 영국 KBT(Keep Britain Tidy) 주관 ‘Green Flag Award’에 동아시아 최초로 인증받은 바 있다.

제19기 울진녹색농업대학 수료생 68명 배출

표고버섯·농산물마케팅반 등
3개 과정 100여시간 ↑ 교육

울진군은 지난 7일 울진군농업기술센터에서 제19기 울진녹색농업대학 수료식을 갖고 68명의 농업선도 핵심 인력을 배출했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녹색농업대학 발전 및 자치활동 운영에 기여한 공로자 최성희는 농촌진흥청장상을 정영미, 이만영은 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개근상은 15명을 대표하여 이길우가 수상하였다.

울진녹색농업대학은 농업인 소득증대와 지

역특화작목의 고부가가치증대를 통한 울진농업대전환을 위하여 지난 3월부터 표고버섯반, 농산물마케팅반, 한식디저트창업반 등 3개 과정별로 10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을 비롯한 실습교육, 선진현장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수료생 대표 황유성 회장은 “그동안 농업에 있어 어려움이 많았지만 교육을 통해 목표점에 도달하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어 도움이 많이 되었고 앞으로 더 많은 교육생들이 함께 배움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발표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수료생들에게 어려운 농업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농사일과 학업을 병행하시어, 무사히 교육을 마친 수료생들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수료생들이 울진군 농업·농촌 발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전문농업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경주시 농산물 가공 교육 심화과정 수료

창업 필수 포함 마케팅 교육
실제 가공 사업장 운영 다뤄

경주시는 지난 14일 농산물가공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생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농산물가공 교육 심화과정 수료식을 가졌다.

농산물 가공교육 심화과정은 가공교육 기초과정을 이수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난달 15일 개강

해 이달 14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총 10회, 40시간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은 식품위생 법규, 식품 제조 안전관리, 세무관리 등 식품 창업에 필수적인 교육을 포함해 마케팅 전략, 가공 장비 활용 및 농산물 가공상품 만들기 등 실제 가공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추진했다.

김정필 경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올해 개소 예정인 농산물가공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해 교육

생들이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하고 부가가치를 높인 가공품을 생산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농산물 가공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산물 가공교육 기초·심화 과정은 농산물 가공종합지원센터 사용을 위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농산물의 가공, 창업 및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교육 과정이다.

윤용찬 기자



영덕군은 재배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공비축미와 RPC 자체 수매 산물비에 대한 건조 수수료의 85%와 건조비 수매 시 공공비축미 매입용 톤백포대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조여은 기자

영덕군 건조벼 수매장소서 매입 진행

영덕군은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 계획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건조벼 2408톤(60.197포/40kg)을 지정된 수매장소에서 수분함량 13.0~15.0% 이내 건조상태로 매입한다.

올해 영덕군의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은 벼 재배면적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 물량과 시장격리곡 물량의 추가배정으로 전년도에 비해 24%증가한 약 4,042톤(101,059포/40kg)으로, 이중 산물벼 1,634톤(40,862포/40kg)을 매입을 완료했다.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은 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조곡으로 환산해 결정되며, 우선지급금은 40kg 포대당 4만 원으로 매입 직후 지급하고 최종 정산은 올해 12월 말까지 지급된다.

매입품종은 안평과 삼광이며 채취한 시료에서 타 품종이 20% 이상 혼입된 사실이 적발된 농가는 향후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울릉 청소년수련관, 동아리 경진대회 국무총리상

34개 동아리 중 타악 난타 공연

울릉군 청소년수련관은 지난 16일 서울 광운대학교 동해문화예술관에서 개최된 제23회 대한민국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대상(국

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제23회 대한민국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는 “청소년이 아름다워야 세상이 아름답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사)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이 주최하고, 국무총리실,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이 후

원하며, 공연 부문(음악, 댄스, 무대공연, 전통문화, 글로벌, 초등과 비 공연 부문(영상, 전시, 드론, AI 아트)으로 나누어 시상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구슬땀을 흘리며 연습해 연일 수상의 기쁨을 안겨주는 관내 청소년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원환 기자

경산 영천
청도 고령
성주 칠곡



경산 (주)엠피코, 식품 기부

경산시 남전면 소재 (주)엠피코는 15일 지역민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자 경산시청에 과일 원액 주스 445박스(2,40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

(주)엠피코 홍성준 대표는 “천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어려운 환경에 놓인 이웃들이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오늘의 기부가 더 나은 삶과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이웃과 함께 성장하여 맺은 열매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시민이 중심이 되고 시민이 행복한 경산 만들기 에 이번 기부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기부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공감의 가치를 확산하고 다양한 소외계층에 많은 행복을 전할 것”이라며 “후원해주신 물품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소중히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영천 신년면, 김장나누기

영천시 신년면새마을회는 15일 남·여회원 40여 명이 모여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난 8월에 파종하여 수확한 배추로 김장을 담가 지역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였다.

정순숙 새마을부녀회장은 “이른 아침부터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김장김치를 담그느라 수고해 주신 회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사랑의 김장나누기로 따뜻한 이웃사랑의 온기도 함께 전달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달받은 김치는 각 리별 경로당 및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가구에 전달되어 울거울 든든한 식재료로 지원될 예정이다.

고령군, ‘유용미생물’ 안정적 공급 ‘최선’

시설개선 13억 원 투자해
연간 80톤으로 확대 목표
“병해충·약취 저감 효과”

고령군 농업기술센터는 유용미생물배양실 확장 및 장비 시스템 개선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미생물 공급을 11월 11일부터 재개했다. 미생물 공급 재개로 원예 및 축산 농가들이 양질의 미생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늘어나는 미생물 수요에 발맞춰 미생물 공급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령군에서는 시설개선에 13억 원을 투자해 연간 40톤 공급되던 미생물을 80톤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 현장에서 미생물의 병해충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한 주기적인 검사를 받고 있다. 고령군은 “이번 미생물 공급 재개가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고 농가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미생물 공급을 통해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배영백 기자



고령군 농업기술센터는 유용미생물배양실 확장 및 장비 시스템 개선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미생물 공급을 11월 11일부터 재개했다.

영천시장, 스마트팜 조성 현장 점검 나서

총사업비 200억원 4ha 조성
아열대 과수 재배 기술 확립

최기문 영천시장은 15일 영천시 금호읍, 북안면 일원에 추진 중인 스마트팜 조성 현장을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금호읍 일원에 추진 중인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2022년 농업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다. 총사업비 200억원(국비 140억, 도비 18억, 시비 42억)을 투입해

부지 5.3ha에 임대형 스마트팜 4ha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청년농에게 스마트팜 시설투자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경영 노하우와 수익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한편 아열대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영천 과수산업의 다양화 및 지속성을 위해 북안면 반정리 일원에 시행 중이다. 3.9ha 규모로 총사업비 148억원(도비 50억, 시비 98억)을 투입해 아열대과수 재배실증은 실 및 교육관, 실습형 임대온실을 조성하고, 신소득 작목인 애플망고, 감귤류 등 아열대 과수

재배 기술 확립 및 체계적인 보급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영천시의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총 8ha 정도의 규모로 조성 중이며, 내년부터 스마트팜이 본격 운영되면 새로운 농촌경쟁력 확보와 미래 농업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앞으로 영천시는 스마트팜 선두주자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첨단시설인 만큼 더욱 꼼꼼하게 공사에 완벽을 기해서 성공적인 스마트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은하 기자

칠곡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호평

칠곡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내실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초·4~6학년)에게 학습지원, 체험활동, 급식·상단·건강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지원하는 방과후 돌봄 서비스 사업이다.

지난 11월 8일 칠곡군교육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초·4학년생들의 합성이 울려 퍼졌다.

사다리 옮기기, 스핀지 큐브 등 다양한 신체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된 이날 운동회는, 평소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배운 영어로 소통하며 신체활동을 통한 즐거움을 동시에 체험토록 했다.

청도군, FTA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 신청 접수

1000㎡ 이상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청도군은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 고품질 과실의 안전 생산과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기반 구축지원을 위한 ‘2025년 FTA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을 12월 9일까지 지역농협에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 품목은 복숭아, 뽕, 감, 사과, 자두, 포도 등 과수 품목으로, 2012년 3월 15일 이전에 조성된 과원으로 과원 면적이 1,000㎡ 이상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 신청 가능하다.

재해 예방시설의 경우 2012년 이후 조성된 과원도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농협에 출하 실적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며, 기후변화 대응으로 비가림시설, 미세살수장치, 관수관비시설(점적관수) 등 사업이 추가됐다.

지원내용은 지주시설(우산형, 개별식, Y자형, 유인대), 관수관비시설(스프링클러, 점적관수), 관정, 품종갱신(복숭아, 사과, 포도, 자두), 방풍망, 배수시설(유관), 야생동물방지사설(전기울타리, 철책울타리, 방조망), 비가림시설(복숭아, 포도), 서리우박방지사설(미세살수장치) 등으로 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

청도군은 올해 200여 농가에 총사업비 10억 9천만 원을 지원했고, 내년에는 1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기후변화 등으로 급변하는 농업환경에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2025년 FTA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고품질 농산물의 안전 생산 및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이 증대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농업 신기술 도입과 재해 예방시설 지원 등으로 농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성주군, 참한별 온(溫)동네 스무바퀴 성료

복지서비스 접근 어려운 곳 지원
8주간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진행

성주군종합사회복지관은 14일 성주군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에서 2024년 참한별 온(溫)동네 스무바퀴 최종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연간진행된 프로그램의 성과발표와 참여 경험 및 소감을 공유하여 앞으로 한층 더 발전된 사업을 운영하고자 마련되었으며, 2024년 참한별 온동네 스무바퀴 사업에 참여한 마을이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등 마을대표들과 활동을 도와준 자원봉사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하여 성과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4년째 위탁 운영하고 있는 ‘참한별 온(溫)동네 스무바퀴’ 사업은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10개 읍면, 총 20개 마을을 선정하여 찾아가



는 성주군만의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지난 2월 선남면 문방1리·문방2리를 시작으로 10월 성주읍 성산1리·성산3리까지 총 20개 마을에서 8주간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끝난 후에는‘동심통(同心通):마을과 마을이 마음이 통하다’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이웃 마을과 함께‘참한별 이동복지관’을 개최해 올한해 2천여명의 지역주민이 참여하며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도재훈 기자



구미 김천
문경 상주
의성



(주)LS전선 구미, 연탄 후원

구미시는 지난 14일, (주)LS전선 구미공장으로부터 겨울철 난방이 어려운 취약 가구를 위해 연탄 2,000장(200만 원 상당)을 후원받았다.

이번 후원으로 구미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10가구가 혜택을 보게 됐으며, 각 가구당 연탄 200장이 전달됐다. 특히 (주)LS전선 구미공장 임직원들은 방문 간호사들과 함께 직접 연탄을 배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주)LS전선 구미공장은 2007년부터 임직원들이 급여의 일부를 기부해 조성한 우수리 기금을 통해 구미보건소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19가구에 매월 10만 원씩 2,28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지역 사회 복지에 꾸준히 기여하고 있다.



금북장학재단, 김천시 장학금

김천복지재단은 지난 14일 금북장학재단으로부터 인제양성장학금 1,0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올해로 창립 67주년을 맞은 (주)금북주는 고객감동, 사회공헌, 환경보호의 기본 이념 아래 금북문화재단, 금북복지재단, 금북장학재단 등 3개의 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육영사업의 하나로 대구·경북 3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다방면의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김일환 금북주 대표이사는 “금북주가 지역민의 사랑으로 성장한 만큼 미래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인재들이 마음 놓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상주시, 농산물품질관리원 도심이전 추진

구미·원주·아산 공동건의문
대도시 특례 기준 5백km² 제안
하향 조정 요청 행안부 제출

상주시는 13일 원도심 기능강화 및 압축도시를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상주사무소가 시 외곽에 위치해 있어, 매년 직불제 등을 위한 경영체 등록과 관리를 위해 많은 농가들이 방문에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상주시는 주민행정 편의와 원도심 기능강화 및 도시경관 회복을 위해 홍물로 방치되어 있던 구 홈마트 부지를 올해 2월 매입하여 농관원과 국·공유재산 교환 방식으로 신축부지를 이전할 계획을 추진했고 이번에 그 결실을 맺었다.

상주시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다. 저출산과 인구감소는 국가적 현안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이에 상주시는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방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기 위한 방법으로 원도심 기능 강화와 압축도시 조성 계획을 추진중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국·공유재산 교환도 도심기능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상권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선제적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상주시는 도심공동화에 대응하고 나아가 도시 경쟁력 강화와 민생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제25회 대한민국 정수대전 시상식’ 개최

우수작 선정 44명 수상자 영예
문체부 장관상 미술 부문 이병일

구미시는 지난 14일 새마을운동테마공원 글로벌관에서 ‘제25회 대한민국 정수대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25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정수대전은 구미시가 주최하고 (사)한국정수문화예술원이 주관하여, 미술, 서예·문인화, 사진 세 분야에서 작품을 모집해 심사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총 2,812점의 출품작 중 우수작으로 선정된 44명의 수상자에게 상이 수여됐다. 특히, 영예의 정수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은 미술 부문 이병일 작가의 ‘영원불변’, 사진 부문 이장희 작가의 ‘뿌리 깊은 나무’, 서예·문인화 부문 손주영 작가의 ‘담배연기와도 같은 인생이여’가 각각 차지했다.

영수 여사의 삶과 사상이 예술로 재현된 작품들을 감상하며, 역사적 의미와 예술적 가치를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환영사에서 “정수대전의 성공을 위해 헌신해 준 관계자와 뛰어난 작품으로 대회의 품격을 높여준 수상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 정수대전이 예술인 간의 교류를 증진하고 전국의 관람객에게 우수한 예술작품을 감상할 기회를 제공하는 소중한 대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송명주 기자

김천시 행복육아 사진 공모 심사위원회 개최

역대 최다 총 103점 접수
‘왕할머니와 콩나물’ 최우수

김천시는 지난 14일 행복육아 사진 공모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행복육아 사진 공모전은 기존 남성육아사진 공모전에서의 취지를 확대해 긍정적인 육아 인식을 확산하고 가족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아이와 함께하는 모든 시간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순간들을 담은 사진을 지난 10월 11일부터 10월 25일까지 공모했다. 또한 인터넷접수도 가능하게 해 역대 최다인 총103점이 접수되는 등

많은 시민들의 공감과 관심을 알 수 있었다. 행복 육아 사진 공모 심사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사진 전문가와 문화예술가, 시민참여단 등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됐으며, 주제 적합성과 작품성 및 창의성을 고려해 종합적인 심사가 이뤄졌다.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할머니와 손자가 즐겁게 콩나물을 따는 일상의 모습을 보여준 장재민씨의 ‘왕할머니와 콩나물’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우수상 2명, 장려상 5명, 입선 12명을 포함한 20작품은 김천시청 등 관내 공공기관 등에서 일정기간 전시되며 시상식은 12월 중 개최되는 여성친화도시 성과보고회 시 열릴 예정이다.

문경시청 제2민원실 개소... 주민 이용 호응

홍보 현수막 관내 6곳 게첨
민원 처리·고충상담 힘쓸 것



‘문경시청 제2민원실’은 신현국 문경시장의 제1호 공약사업으로 구도심 지역 상권 활성화와 인

근 주민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개소된 지 2년 2개월이 흘렀다. 그동안 민원 처리 건수는 총 2,271건으로 인근 주민들과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민원 처리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제2민원실은 깨끗하고 밝은 공간 분위기 조성을 통해 시민들이 다시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최근에 꽃과 화분으로 사무실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였으며, 많은 시민들이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현수막을 관내 6곳에 게첨하였다. 정중석 종합민원과장은 “제2민원실은 소외된 인근 상권 지역 주민들에게 편리한 민원 처리 및 고충민원 상담을 통해 든든한 힘이 되어 주겠다.”라고 말했다.



준비된 땅 상주!

임지, 교통, 인프라, 탁월한 미래가치까지
상주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군사수도 건설을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된 군사시설 최적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군사시설 최적지 상주!

최적의 입지와 교통
국도 중심부에 위치하여 전국 2시간 이내의 접근성, 중부내륙철도 개통(예정)으로 더 빨라진 KTX역세권

원스톱 자원과 풍부한 인프라
이전사업 TF팀이 원스톱 지원과 교육, 의료, 관광, 문화, 일자리까지 부족함 없이 누리는 민군상생혜택타운 건설

군사훈련 최적지
너른 평지와 저렴한 공시지가, 다양한 지형을 조화롭게 갖춰 전술적인 훈련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부지

결집된 유치 의지
범시민 유치 추진위원회들 중심으로 상주시민 모두가 한마음을 한뜻으로 군사시설 이전 유치 홍보활동 전개

상주시
SANGJU CITY

안동 영주 예천 봉화 영양



안동 명륜동 난방용품 기부

안동시 명륜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는 14일 지역 내 저소득층 가구와 독거노인 등 겨울철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전기장판 21장을 기부하며 나눔을 실천했다. 새마을지도자회원들과 명륜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함께 대상 가구에 직접 전기장판을 배달하고 안부를 물으며 어르신들의 말벗이 돼드려 큰 호응을 얻었다. 임기중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은 “겨울철 추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전기장판 나눔 행사를 갖게 됐다.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역사회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영주청년정책협, 어르신 봉사

영주시는 영주시청년정책협의체가 지난 14일,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해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이병철 대표와 분과장 등 협의체 회원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복지시설 직원들과 함께 어르신 점심식사 배식을 도왔으며,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 내부를 정성껏 청소했다. 영주시청년정책협의체는 영주의 청년들을 대표하는 네트워크로, 2021년에 발족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 외에도 영주시청년정책 발굴, 청년 의견 수렴, 시정활동 참여 및 홍보 활동을 활발히 이어오고 있다.



안동 송하동, 짜장면 나눔

안동시 송하동지역사회보장협의회회는 14일 송현1공원에서 송현2주공아파트 주변 어르신 200여 명을 모시고 짜장면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예림중화식당(대표 이상인)에서 정성껏 만들어진 짜장면을 기부받아 송하동지역사회보장협의회 회원들이 직접 배식하고 떡, 과일 등 간식도 준비해 어르신들을 대접했다.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짜장면을 먹으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옛 추억을 떠올리는 등 훈훈한 분위기로 식사를 즐겼다. 또한 송하동 간호공무원이 식사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혈압, 혈당 체크 등 건강상담 코너를 함께 운영해 좋은 호응을 얻기도 했다.



봉화군 “임대형 스마트팜 모범사례 만들 것”

2025년 9월 준공 목표 사업
스마트팜 온실 3.5ha 조성
에너지절약 우수 시스템 등

봉화군은 지난 14일 봉성면 창평리 일원에서 봉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박현국 봉화군수, 권영준 봉화군의회의장, 박창욱 도의원, 정주호 경상북도 스마트농업혁신과장 등 약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화 임대형스마트팜 사업내용 보고, 축사, 시삽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봉화 임대형 스마트팜은 총사업비 235억 원으로 2025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내용은 전체 5.3ha 부지에 스마트팜 온

실 3.5ha 조성과 스마트팜 연구소 등 부대시설 1.8ha가 조성될 예정이며, 온실은 전체 2동으로 A동은 2ha로 딸기가 재배되며, B동은 1.5ha로 토마토가 재배될 계획이다. 특히 양액 재활용시설 완비, 고성능 공기열 난방시스템 도입 등으로 환경보호 및 에너지절약 우수 시스템 도입을 통한 전국 최고시설 임대형스마트팜을 준비하고 있다. 2025년 9월에 준공될 봉화 임대형스마트팜

은 21명의 농업인들이 3년간 스마트팜을 경영하게 되며, 지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지자체 주관 임대형 스마트팜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봉화 임대형스마트팜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어 우리군의 농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봉화군의 제2의 도약을 이끌어 내겠다.”라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영주시 ‘드론산업 육성·대(對)드론 분야 업무협약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 참여
영주비상활주로 전략적 활용 추진

경북 영주시는 15일, 시청 강당에서 드론작전사령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하이브리드 파워팩 전주기 관리 특화연구센터(센터장 정호영)와 ‘드론산업 육성 및 대(對)드론 분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대(對)드론 실증사업 훈련장 및 종합평가체계 활용 ▷드론산업 기반 조성 및 관련 기업 유치 ▷드론-대(對)드론 종합평가센터 및 시험인증 체계 구축 ▷드론특화 예

지자립 실증사업 추진 등 다각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드론작전사령부는 지난해 창설된 대한민국 국군의 드론 및 무인기 작전 전담 부대이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국내 유일의 정보통신 분야 표준화 및 시험인증 전문기관이다. 또한, 하이브리드 파워팩 전주기 관리 특화연구센터는 방위사업청의 지원으로 무인체계 전기(電氣)추진 시스템 국산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영주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영주비상활주로를 방산 및 민간 드론산업에 활용하고, 지역에 드론 제조부터 평가, 정비, 폐기까지 아우르는 드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 시는 지난 10월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 신청을 시작으로 드론산업 육성을 본격 추진 중이다. 이번 협약의 가교역할을 한 임종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주·봉화·영양)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영주비상활주로를 드론 시험 및 기업 유치의 전략적 장소로 활용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이번 협약이 영주를 방산뿐 아니라 민간 드론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드론 제조와 평가, 정비, 폐기가 원스톱으로 가능한 드론 산업 허브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전상기기자

예천군, 백일해 감염 예방 홍보

예천군이 유·초·중·고등학교 등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백일해 감염 예방 수칙 준수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예천군은 백일해 환자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예천에서도 최근 환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학교와 어린이집에 백일해 감염 예방수칙 안내문을 배포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백일해는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비밀을 통한 호흡기 전파가 주된 경로이며 잠복기는 21일이다. 1세 미만 영아의 경우 예방접종(2·4·6개월)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연령에 따른 추가 접종도 꼭 필요하다. 초기 증상은 콧물, 미열, 경미한 기침 등 일반적인 감기와 비슷하다. 송영주 기자

영양군의회 고위직 대상 건전 공직사회 교육

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강사 초빙
“건전한 공직 사회 조성 시발점”

영양군의회는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영양군청 소회의실에서 의원 및 직원 16명을 대상으로 “2024년 영양군의회 고위직 공무원 대상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딥페이크, 사이버 폭력,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속 김향숙 폭력 예방 통합교육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하였으며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처법을 중점적으로 다뤄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김영범 의장은 “4대 폭력 예방과 성평등 조직문화 확립은 건전한 공직 사회 조성의 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성평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성인지적 역량을 강화하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권윤동 기자

‘영주댐 전국 건강걷기대회’ 6천여 명 참여

영주호 경관과 가을 정취 만끽
16일 영주댐 일원에서 성황리 열려

경북 영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후원하고 영주시체육회가 주최·주관한 ‘2024 영주댐 전국 건강걷기대회’가 16일, 영주댐 일원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영주댐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온 6천여 명의 참가자가 함께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오전 9시 50분 동호이주단지 삼거리에서 출발해 용미교, 용두교, 용마루 2공원을 지나 평은역사를 반환점으로 하는 코스를 걸으며 영주호의 가을 정취를 만끽했다. 전상기기자

봉화군 가상계좌 납부서비스 확대 운영

봉화군은 이달부터 과태료 등 각종 세외수입 납부를 위한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세외수입 납부 접근성을 높이고 납부 편의

제고를 위해 기존 NH농협은행에 시중은행인 국민·신한은행을 추가해, 세외수입을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은행선택의 폭을 한층 넓여졌다. 세외수입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당금, 사용료 등 납부를 위해 전용 가상계좌를 부여해 인터넷뱅킹, CD/ATM, 텔레뱅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고지서에 부여된 은행별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박덕택 재정과장은 “세외수입 가상계좌 확대 운영 간 이체로 인한 송금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들의

납부 편의를 위해 다양한 시책발굴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덕택 재정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는 만큼 기한 내에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상기기자

2024 예천군 평생학습포럼 성공적 개최

기조강연 · 주제발표 · 토론
예천군 적합한 비전 등 다뤄

예천군은 15일 오후 1시 30분 예천군 청소년수련관에서 ‘예천군 평생학습사회로서의 지속가능한 패러다임’을 주제로 2024 예천군 평생학습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예천군이 평생학습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지향적 학습 패러다임을 논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포럼에는 지자체 평생교육 담당자, 평생교육 전문가, 교육 정책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방향성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평생학습의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관점에서 기조강연과 주제발표, 토론이 이어졌다. 주요 발표자들은 각기 다른 분야에서 평생학습이 어떻게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속 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공유했다. 특히, 이희수 중앙대학교 교수는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 지역사회



의 경제적·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열쇠”라며, 예천군에 적합한 전략적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예천군은 이번 포럼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평생학습 사회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세대가 함께 학습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마련해 평생학습이 주민 일상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김학동 군수는 “이번 포럼을 통해 평생학습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앞으로 예천군은 평생학습을 기반으로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영주 기자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
POWERFUL DAEGU



대구광역시
DAEGU METROPOLITAN CITY

250만 대구시민도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가 있습니다

1991년 낙동강 페놀사고 이후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은
30여년간 이어온 대구시민의 염원입니다.
대구시민의 안전한 물 마실 권리를 위해
안동댐 1급수를 대구로 직접 공급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수돗물 걱정 없는 ‘맑은 물 대구’
‘맑은 물 하이웨이’로 만들겠습니다.



맑은 물 하이웨이

‘맑은 물 하이웨이’는 안동댐 직하류에서 수질 좋은 원수를 취수해 110km 길이의 도수관로를 따라 대구 문산-매곡 정수장까지 공급하는 사업입니다.